

에서 근무하셨으며 이제 공사 사장으로서 열 공급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수요개발 및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난방사업이 보다 알차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할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히셨다.

## 협회활동 보고 Activities of K.C.A

### 1. 정기총회 사후처리

1999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추진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 선임된 임원에 대한 법인 등기부에 등재
- 정관개정의 산업자원부 승인
- 협회 규정의 개정 및 시행
- 총회 의사록 사본 제작 및 회원사 송부

### 2. 1999년도 연회비 납부 고지

금년도 연회비를 1999. 5. 15일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고지하여, 많은 회원사가 납부하였으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미납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히 납부하여 협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있음.

### 3. 협회지 제11호('99.봄호) 발간배포

- 발간일 배포 부수 : 350부

### 4. 규제완화 추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99. 4. 13일 자로 관보에 입법예고됨에 따라 터빈·발전기 검사주기 완화를 일본 전기사업법 관련조항과 비교 검토하여 산업자원부(99. 4. 27)에 건의하고 동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제1심의판: 99. 4. 27)에 건의하였으며 99. 4. 30일에는 동 내

용의 당위성을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하여 설명하였음. (검사주기완화 건의내용: 참고자료 참조)

### 5. 열병합발전설비 정비·보수·시공업체 자료조사 및 책자 발간

국내 열병합발전설비 보유·운용업체의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사의 협조를 얻어 1999. 4. 29~5. 10일간에 열병합발전설비 정비·보수·시공업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열병합발전설비 정비·보수·시공업체정보를 책자로 발간(200부)하여 회원사 및 관련업체에 배포하였음.

### 6. 회장 승계 추진

우리 협회 회장이시던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태곤 사장의 퇴임에 따라 그 후임이신 김영철 사장께서 회장직을 승계토록 관련업무를 추진 중임.

### 7. '99 열병합발전 기술교육 준비

협회의 '99 사업계획에 따라 '99 열병합발전 기술(유지·보수)교육을 금년 3/4분기중에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조사 등 교육실시 준비중에 있음.

## 8. 사무국 현황

협회 사무국은 그동안 고생하시던 배성준 사무국장(상임이사)께서 임기 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동력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근무한 박희웅이

99년 6월 3일부로 임명되어 기히 근무하던 직원과 함께 2명이 근무하고 있음.

제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바라고 있음.

## 문현정보

Documentary Informations

### 1. 코ージェ네レーション(1999.가을·겨울호) (일본열병합발전센타: 133면)

- 초저 NOx 촉매 연소기기 개발
- 비등 냉각형 가스엔진 열병합발전개발
- 소형가스터빈에 의한 열전가변형시스템
- 열병합발전 설치사례(6건)

### 2. 산유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효율화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111면)

- 원유도입선다변화 정책에 관한 검토 -
-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정책과 원유도입 실적
- 세계 원유공급구조 분석
- 주요 도입선의 원유판매정책
- 원유 도입선다변화 정책의 재검토 등

### 3. 외국의 에너지 수급 및 정책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59면)

- 중국의 에너지 수급 및 정책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급 및 정책
- 멕시코의 에너지 수급 및 정책 등

### 4.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26면)

- 국내 석유산업 규제완화와 개방추이
- 석유산업 규제완화의 해외 사례
- 대외개방과 석유산업에의 영향
- 대외개방의 대응방안

♣ Opportunity has power over all things.

기회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다.

소포클레스(BC 496~406·그리스시인)

♣ An optimist sees an opportunity in every calamity, a pessimist sees a calamity in every opportunity.

낙천주의자는 모든 불행속에서도 기회를 찾지만 염세주의자는 모든 기회속에서도 불행을 본다.

원스턴 처칠(1874~1965·영국정치가)